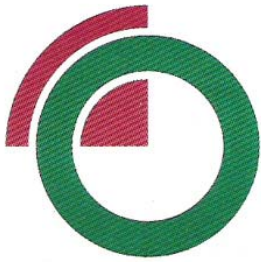


LME, 5월27일 PP · LLDPE 상장

미국 3곳에서 설명회 개최 분주 ... 생산능력 확대경쟁 가능성 주목

LME(London Metal Exchange) 시장이 5월27일 폴리머 거래 시작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LME는 플라스틱 거래를 앞두고 최근 뉴욕에서 관련기업 및 무역상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곧 시카고 및 휴스턴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ME는 플라스틱 첫 거래대상으로 PP(Polypropylene)과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를 상정하고 있으며, 계속 거래품목 및 거래량을 확대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거래에 성공하면 액체 모노머 거래까지 계획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다만, 폴리머 생산기업들이 품질과 기능성 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있어 LME의 폴리머 거래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LME는 범용제품 가격은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능력 확대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999년 동(Copper)와 알루미늄, PP, LLDPE 거래물량이 작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동 및 알루미늄 무역규모가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LME는 PP 및 LLDPE 거래에서 월 계약가격 단위의 거래를 희망하고 있는데, Basell은 Spot 거래를 희망하고 있다.

LME는 알루미늄 거래가 정착되는데 7년이 걸렸으나 플라스틱은 거래자들의 이해도가 높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어 쉽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18>